

## ‘도심 흉물’ 광주 장기 방치 건축물 활용, 해법 찾을까

옛 서진병원 부지 매입 끝나면 전면 철거 수순  
 주월동·방림동 짓다만 건물도 공사 재개할 듯  
 법적 분쟁·매각 무산도...지자체 정비사업 한계

공사 중단 이후 광주 도심 흉물로 전락한 장기 방치 건축물의 활용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11일 광주 자치구에 따르면 건축 공사가 중단된 이후 최소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남구 3곳, 서구 1곳, 광산구 1곳이다. 동구·북구에도 장기 방치 건축물이 1곳씩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마쳤다.

남구 주월동 옛 서진병원(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은 자금 부족으로 1995년 건립공사가 중단, 27년째 미완공 건물이다.

지역 모 부동산개발업체가 지난 2016년 11월과 2021년 8월 2차례 공매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취득, 건물 전면철거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필지 내 일부

건물 매입 절차가 남았다. 8차례 경매가 유찰됐으나 개발업체는 조만간 낙찰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업체 측은 옛 서진병원 건물 주변 필지 매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주변 고등학교 2곳과 철거 일정을 협의한다. 통학 안전 확보·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르면 올 겨울방학 중 철거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청 청사 맞은 편인 주월동 소재 10층 건축물도 요양병원 용도로 짓다가 골조 공정이 끝난 2016년 이후 공사가 중단, 6년째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법원 확정 판결을 거쳐 토지·건물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대금 정산문제도 해결됐다. 건축주·시공자 변경신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을 상반기 건물을 둘러싼 외곽 비계·낙하 방지 망 등을 철거하고 가설 울타리를 재정비했다.

방림동에는 오피스텔 용도로 짓다가 착공 2년 만인 2006년 7월 공사가 중단된 11층 짜리 건물(공정율 85%)이 남아있다. 지난해 한 유한회사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새 건축주는 올해 2월 건축 허가 변경을 신청, 관할 지자체 남구 관련 부서가 인·허가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반면 서구청 맞은 편 대로변에 선 10층 규모 폐건물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한 건설사가 사옥·모델하우스 목적으로 짓다가 2010년 공정률 60%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고층부엔 외벽 유리창조차 설치되지 않아 에스컬레이터 등이 고스란히 노출, 대표적인 도심 흉물로 꼽힌다.

이후 건축주가 3차례 바뀌었으나,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하청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현 건축주는 ‘허물고 다른 용도 건물로 다시 짓겠다’며 유치권 행사 중인 하청 건설사와 명도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공사 중단 장기 방



광주 남구 주월동 옛 서진병원 건물.

치 건축물 정비 6차 선도사업’ 예비사업 대상으로 선정, 생활SOC 등으로 탈바꿈할지 관심을 모았으나 건축주 반대로 무산됐다.

광산구 삼거동 소재 학교 용도로 짓다만 5층 건물 3개 동 역시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해당 건물은 모 학교법인이 1997년 1월 착공했으나, 2002년 학교 설립계획 승인 취소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공정율은 40%에 그쳐

경매 매각 등이 무산됐다. 현재는 학교법인 측이 20년째 토지·건물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장기 방치 건축물 실태 조사·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매입 등 정비계획 추진 과정에 건축주 동의가 필요하고, 법적 다름 중인 경우가 많아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재환기자

## 최초 또 최초...‘오징어 게임’ 에미상 감독·남우주연 등 6관왕



오징어게임의 주역들이 1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리는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 도착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오영수, 정호연, 감독 황동혁, 싸이렌픽처스 김지연 대표, 배우 이정재, 박해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E Emmy) 시상식에서 감독상·남우주연상 등 6관왕에 올랐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이 시상식 후보에 오른 것도 상을 받은 것도 모두 처음이다. <관련기사 13면>

‘오징어 게임’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이크로소프트시어터에서 열린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Primetime Emmy Awards)에서 황동혁 감독이 드라마 시리즈 부문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가 같은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4일 열린 프라임타임 크리에이티브 아트 에미 시상식에서 배우 이유미가 받은 여우단역상을 포함해 특수효과·스튜디오 포먼스·미술상을 더해 총 6관왕에 올랐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영미권이 아닌 지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후보로 지명되고 상을 받은 건 에미 74년 역사상 ‘오징어 게임’이 최초다. 미국텔레비전예술과학아카

데미어 작품 최초 후보·수상 역사 써  
 황동혁 감독상·이정재 남우주연상 쾌거  
 여우단역·특수효과·미술·스튜디오 수상

데미(The Academy of Television Arts & Sciences-ATAS)가 주최하는 에미 시상식은 ‘TV 아카데미’로 불릴 정도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황 감독은 아시아 감독 최초로 에미에서 감독상을 받아내는 역사를 썼다. 앞서 2016년 인도계 미국인 감독 겸 배우 아지즈 안사리가 ‘마스터 오브 논’으로 아시아계 감독 최초로 감독상 후보에 오른 적은 있으나 수상하지는 못했다. 황 감독은 “사람들은 내가 역사를 썼다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역사를 쓴 것”이라며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작품이 에미에서 상을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정재 역시 아시아 국적 배우 최초로 에미에서 연기상을 받은 배우가 됐다. 앞서 2010년 아치 판자비가 ‘굿 와이프’로 아시아

계 배우 최초로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조연상을, 2017년 리즈 아메드가 ‘나이트 오브’로 리미티드 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을, 대런 크리스가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로 다음 해 같은 부문에서 수상한 적이 있긴 하다. 영어가 아닌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배우가 에미 주요 부문에서 수상한 건 이정재가 최초다.

이정재는 무대에 올라 영어로 “에미 축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팀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어로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과 친구, 가족, 소중한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재는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 레드카펫 행사에서 “상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냐”는 물음에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트로피를 놔두겠다”고 했다.

이정재와 함께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정호연,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오영수와 박해수는 수상하지 못했다. 또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뉴스

## 제24회 서편제

# 보성 소리 축제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2022.  
 9. 30. - 10. 2. 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보성 판소리 성지

접수기간

2022.8.16. 화 ~ 9.23. 목 18:00 까지 도착분

접수방법 본인 및 대리신청, 방문·우편·e-mail·FAX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증 지참(대회 당일)

※ 판소리 명칭부·원형 또는 2시간 이상 발표 경력 증명 자료 제출

참가비 없음

접수처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우편 및 방문 (59453)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 보성문화원

e-mail bs2629@hanmail.net · FAX (061)853-2629

접수안내 (061)850-5892, 852-2629 /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www.boseong.go.kr/tour/festival/sopyonje

주최 보성군 주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교육청 보성문화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관중 경연대회로 전환될 수 있음.

‘판소리’ 유네스코 무형유산등록 19주년 기념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평행부 대명상  
 녹차도보성

